현대불교 Mandala



조현춘 거사는 〈금강경〉을 보는 순간 불교에 심취했고, 이를 다른 이들에게 쉽고 정확하게 알리는데 천착했다. 그가 '가사체'를 통해 〈금강경〉을 풀이하는데 30년의 세월을 보낸 것은 '가사체'가 부처님 당시 설법을 그대로 표현하는데 가장 적합했기 때문일 것이다. 조현춘 거사가 든 〈가사체 금강경과 조계종 금강경〉이 마치 자식과 같아 보인다.

〈금강경〉 한글자씩 우리말 바꾸니 어느덧 '30년'

산문 밖의 禪 대심 조현춘 거사

'가사체' 보급의 선봉장

부처님 당시 전법 고려

이치 맞춘 것이 '가사체'

경전 독송 전 이해 필수

한문번역 오류 태반

무비 스님은 평생 스승

〈금강경〉 해설본 가져가자

격려하며 "번역하라"

감수에서 공저로 협력

"스님계셔서 신바람 나"

불교의 역사는 '역경'(易經)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당시 사람들의 언어로 바꾸는 것은 전법교화와 수행정진의 밑바탕이었기 때문이다. 한국불교 또한 불교 전래 이후 꾸준히 우리 말로 바꾸는 작업이 진행돼 왔다. 이중 경전의 한글화는 지금 이 시대 사람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이 어떻게 다가갈지를 드러낸 가장 중요한 과업이다.

하지만 경전 한글화는 수많은 번역으로 인한 분분한 해석으로 '정설'이 없었다. 독경할 때 문맥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거나 용어가 적절치 않아도 이른바 '그러려니' 하며 봐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바른 경전 읽기는 어불성설일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30년 간 원전을 탐독, 우리 시대 말로 〈금강경〉을 풀이해 온 한 불자가 있다. 바로 가사체금강경독송회장 대심 조현춘 거사(경북대 심리학과 명예교수)가 그 주인공이다. 대심 조현춘 거사는 무비 스님과 〈가사체 금강경〉을 내고, 가사체 보급에 앞장서고 있다.

가사(歌辭)는 조선 초 만들어진 3×4조나 4×4조를 기본으로 한 운문과 산문의 중간 형태의 문학으로 가사체(歌辭體)는 특유의 음률이 있는 문체를 지칭한다. 특히 조현춘 거사는 9종의 금강경을 대조, 교감해 가장 적절한 문장과 어휘, 글자를 선택하고, 이를 독송하기 좋게 가사체로 다듬어 왔다.

동양 정신유산 탐구에 청춘을

번역일은 여간 깐깐하지 않으면 하기 어려운 일이다. 조 거사는 번역을 하는 이들이 깐깐한 성격을 지닐 것이란 선입견을 여지없이 깨뜨렸다. 직접 만난 조 거사는 너털웃음을 자랑하는 마음 편한 이웃집 아저씨 같았다. 그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면 교수라는 권위의식을 찾기 힘들었다. 허심탄회한 이야기와 웃음 속에서 자연스럽게 마음이 열리는 것 같았다.

조 거사는 어떻게 30년간 〈금강경〉 공부를 하게 됐을까.

"한번은 서울시립정신병원 임상심리사로 심리치료를 하던 어느 날 지능이 아주 낮은 청년을 만나게 되었지요. 그런데 그 청년의 얼굴은 환자임에도 밝고 평화스러웠어요. 남부러울 것이 없는 저는 힘겨움과 짜증으로 찌든 얼굴을 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제 오만과 편견이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심리학과 교수로 최선을 다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돌아보지 못했음을 느낀 순간이었다. 스스로에게 실망감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학문에도 의문이 드는 순간 대학 지도교수셨던 이장호 교수의 말이 떠올랐다. 동양의 정신 유산이 밑바탕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심리학에 대한 애정이 가득찬 젊은 시절 조 거사는 '동양정신이 없는 서양과학은 살벌하고, 서양과학이 없는 동양정신은 산만하다' 고 생각했다. 서양 이론인 심리학을 우리 땅에서 펼치기 위해서는 먼저 유불도의 동양사상을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어찌보면 당연했다.

조현춘 거사는 서양 상담, 심리치료학을 공부하는 한편, 도덕경, 논어, 천자문 등을 통한 동양사상을 닥치는 대로 탐구했다.

"기체조, 명리학 등 젊은 시절 동양사상은 모두 접했죠. 유불도를 모두 겪은 뒤 불교가 가장 고도의 논리이자 사상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알려고 하면 할수록 불교는 어렵기만 했어요."

조 거사는 용타 스님이 지도하는 동사섭 법회에 참석했다. 학문 만을 다뤘던 그와 스님과의 만남은 두 세계의 부딪힘이었다.

서양의 학문인 심리학을 서양의 시각으로 공부했지만 동양적인 시각을 담아야 겠다는 생각이 더욱 절실해졌다.

조 거사는 국내외의 상담기법을 우리의 정서에 맞도록 새로운 방법의 상담기법으로 만들어보았다. 4박 5일간의 과정으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으로 그 틀이 만들어 졌다. 1992년 1월, 9명이 이 과정에 참여했는데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참가자들의 반응에 제가 오히려 놀랐습니다. 결국 심리상담이 기여하는 것은 '행복'이라는 생각에 '행복훈련'으로 이름 붙였어요. 각계 각층이 참여한 행복훈련의 성과를 정리하며 또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경험, 치료가 오래 지속되는 방법은 없을까란 것이었죠."

근원적인 해결방법에 고뇌가 깊어갈 때 누군가 그에게 〈금강경〉을 보라고 했다. 동양사상을 알고자 닥치는대로 유불도의 각종 서적을 읽어 갈 때였다.

"수백 번 읽고 독송하는 동안 그 의미가 다가오고 자신을 다르게 만들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한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글로 풀이된 〈금강경〉이 영 낯선 것이었습니다. 교수인 저 마저 한글로 읽는 것이 한문으로 읽는 것 보다 더 어렵게 느껴지니 문제였죠."

'왜 요즘 우리 말로 된 〈금강경〉이 없을까' 란 화두가 생겨난 순간이었다. 그는 〈금강경〉을 제대로 읽고 싶었다. 그래야 수십년간 공부해온 심리학을 제대로 연구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무비 스님의 격려, 또 다른 날개를 달다

처음에는 혼자 〈금강경〉을 읽고 앞뒤말을 연결하며 해석해 나갔다. 영어로 된 〈금강경〉과 산스크리트본도 구하고 사전도 구해 대조하며 다시 번역했다.

조 거사는 타종교인과 심리학 전공자를 비롯해서 다양한 전공 영역을 가지고 있는 학자들과 함께 '화엄경과 화이트헤드를 연구하는 모임'을 조직했다. 1996년 조직된 이 모임은 서양사상과 불교사상을 비교하는데 20년의 세월을 보내고 있다. 매주 수요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교수들의 계속되는 공부자리다. 학자 10여 명이 모여 경전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그 다음날에도 의문이 남으면 서로 토론하니 그 진지함은 이루말할 수 없었다. 학자들의 모임이어서 그런지 한자 한자 치밀함의 극치로 한 문장 한 문장 읽어가며 그 뜻을 밝혔다. 경전 한 줄의 해석을 놓고 몇일 논쟁을 벌이기도 수차례 였다. 서로 많은 부분들을 지적하고 또 같이 고민도 하면서 힘이 되어 주었다.

평소 108배와 수행정진을 해왔지만 제대로 공부하려 하자 이른바 겉핥기식 공부였다. 신심보다는 철학적 접근이었다.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나보다. 조 거사는 자신의 공부 방향을 누군가 점검해주길 바라고 주변에 스님을 수소문했다.

당연히 대강백인 무비 스님에 대한 추천의 말이 나왔다. 그런데 그냥 찾아갈 수는 없었다. 무비 스님의 〈금강경 오가해〉를 참고하면서 나름대로 금강경을 현대어로 바꾼 뒤에 스님을 찾아뵙겠다는 생각을 했다.

B2면에 계속

INSIDE

B3
기획연재
박원자의 '인생을 바꾼 108배'

B5
문화
파사무용단 2017 '버려야할 것들' 공연

B6
'간사이 아줌마'의 일본사찰 엿보기
미이데라와 이시야마데라

합송 쉬운 가사체, 불교 전법에 '딱!'



조현춘 거사는 부처님 당시의 설법과 같이 육하원칙에 맞춰 각 불교경전을 새롭게 풀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 불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내야 함을 역설했다.



무비 스님은 스승이자 도반으로 큰 힘이 됐다.



조현춘 거사는 가사체 금강경 독송회 회장으로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

대심 조현춘 거사는?

가사체 금강경 독송회 조현춘 거사의 법명은 의 법명은 대심(大心). '동서양 통합 상담심리학'을 세우기 위해 금강경 공부를 시작해 30여년 교수생활 중에 계속 '불교경전과 상담심리학'이라는 주제의 논문을 썼다. 한국동서정신과학회, 법륜불자교수회, 한국정서행동장애아 교육학회, 대한문학치료학회 회장, 한국교수불자연합회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지금은 '화엄경과 화이트헤드 연구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조현춘 거사' B1면에서 계속

조 거사는 2년 후 나름대로 자신이 정리한 〈금강경〉 해석본을 가지고 무비 스님을 찾았다.

조 거사에 따르면 당시 무비 스님은 법거량을 해보자며 무작정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시달리던 때였다고 한다. 아무런 인연 없이 조 거사가 〈금강경〉 해석본을 들고 찾아가니 놀랄 일이었다. 조 거사는 조용히 해석본을 놓고 스님의 방문을 닫고 나왔다.

3주 후 다시 스님을 찾았을 때 스님은 조 거사를 불러 말했다.

"경전의 어려운 말을 쉬운 우리 말로 펴내는 일은 꼭 필요합니다. 조 거사가 책임지고 한번 해보세요."

스님은 너무도 친절히 〈금강경〉에 대한 가르침을 전해주었다. 스님의 번역에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스님은 뜻밖에도 좋아하시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금강경을 영어로 번역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까지 해주셨다.

스님의 독려에 조 거사의 원력은 배가 됐고, 그 때부터 무비 스님은 조 거사에게 가장 친절하고 든든한 스승이요, 감수자가 됐다.

"스님이 뒤에 딱 계시니 어깨가 으쓱했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잖아요. 학자인 제가 공부한 것을 인정해주시고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해주시니 신바람이 저절로 났습니다."

"저는 그저 정리하고 스님께 점검받는 심부름만 했을 뿐, 다른 학자분들이 모두 같이 의논해서 만들었지요. 〈반야심경〉만 해도 몇 달간 고민을 했습니다. 15번이나 연구, 점검을 해도 다시 토론이었죠. 모임에서 일차로 점검을 하면 이제 무비 스님께 가지고 갔지요. 스님과도 한바탕 담판이었습니다. 꼬박 4시간 가량을 자세 한번 흩트리지 않고 점검 하신 적도 있으세요."

심리학 애정에 불교 공부

"학문 알기전 동양사상 알라"

지도교수 가르침에 불교 관심

〈금강경〉 접하고 매료, 연구

'행복훈련' 서 번뇌해답 찾아

학자 모임 조성 '절차탁마'

불교 관심있는 학자 모아

'화엄경과 화이트헤드 연구회'

함께 불교경전 번역 진행

무비 스님도 이런 과정을 알기에 시간이 지날수록 번역물을 믿고 맡기게 됐고 감수역을 맡았던 무비 스님은 조 거사와 함께 공저도 하게 됐다.

경전 번역의 중요한 원칙은? '순리'

조 거사는 요즘도 〈금강경〉과 하루 8시간 이상 씨름한다. 번역보다 수행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고 한다.

"'수보리야, 보살 마하살이 되려면, 모든 중생들의 모든 고통을 내가 다 없애 주고, 이 모든 중생들을 모두 완전한 기쁨의 세상으로 모시겠다. 이렇게 하여 한량없이 많고, 셀 수 없이 많고 가이없이 많은 중생들을 제도하되, 중생을 제도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부분은 언제 읽어도 환희심이 납니다."

이런 신심이 있기에 조 거사는 〈금강경〉 번역에 있어 하나의 원칙을 갖고 있다. 바로 부처님 당시 상황과 맞는가를 항상 고민하는 것이다.

"경전을 번역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원칙을 먼저 세웠습니다. 경전이 설해지는 부처님 당시의 상황을 충실하게 따르는 것이 첫번째 원칙입니다. 부처님이나 제자들이 '반말'이 아닌 '존댓말'을 사용했을 것이라는 정황으로 이를 풀이해 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금강경〉의 장로 수보리는 부처님보다 40년 연장자입니다. 과연 부처님은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고 했을까요?"

여기서 육하원칙인 육성취(경전을 구성하는 여섯 가지 원칙)로 번역을 구성한다. 이와 함께 우리 말이 지닌 고유한 리듬감을 살려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경전의 흐름을 정리하는 원칙을 갖고 있다.

"바꿔서 생각해보십시오. 부처님 당시에,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내용을 생략한채 부처님이 그냥 가르침을 내리셨을까요. 그리고 제자들이 만약 '여시아문' 한다면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는 것을 직접 보고 들었는지를 당연히 풀어냈겠죠. 그리고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얘기했을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조계종의 표준 금강경과 대조해, 한문 및 우리말 번역이 서로 어떻게 다른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수였다.

일단 〈구마라집 금강경〉을 1차 저본으로, 범본, 보리유지본, 진제본, 달마급다본, 현장본, 의정본, 티베트어본, 몽고본 등을 참고해 현재 조계종에서 표준본으로 제시한 한문에서 약 500여 자를 수정 보완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약 10분의 1에 달한다.

조 거사는 "'나무아미타불'이나 '관세음보살' 명호 만을 염하기보다는 〈관음경〉이나 〈아미타경〉 독송을 통해 불교를 먼저 이해할 것"을 강조했다. 경전 독송을 통해 부처님 가르침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금강경〉을 독송하다보니 근원도 알 수 없는 나 자신의 저 깊고 깊은 곳에서 생명의 빛이 흘러나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전에 갖고 있는 모든 지혜가 한방울의 물이라면, 그 빛의 크기는 바다보다도 더 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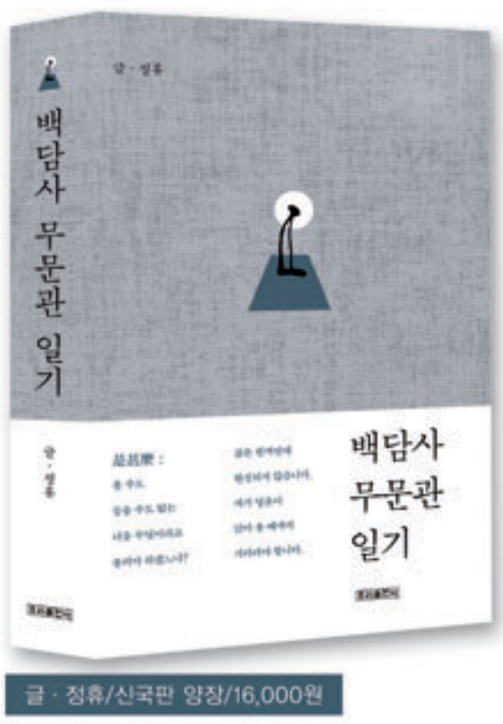
2012년 가사체 한글금강경을 펴낸 그는 2015년 가사체 한글금강경과 교감본 한문 금강경을 발간했다. 가사체의 특징인 운율을 살려 음반도 냈다.

"남은 과제는 보다 많은 이들이 가사체 금강경을 접하는 겁니다. 대중이 함께 운율이 섞인 가사체를 독송하며 신심을 증장하는 그날을 기다려 봅니다."

조 거사는 오늘도 특유의 트레이드 마크인 '허허허' 웃음을 지으며, 불자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대구=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是甚麼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너를 무엇이라고 불러야 하겠느냐?



"죽음 언제든 온다는 걸 알면 마음 비우고 살아갈 수 있어"
"집착 내려놓을 때 내적 성숙 가능 나이 들수록 자기 자신 돌아보길"

백담사 무문관 일기

글 · 정휴/신국판 양장/16,000원

그는 몸과 마음에서 無碍의 자유를 풀어내는 雲水이다.
衲僧과는 평생 把手共行한 寒山 같은 도우이다.
일찍이 禪敎를 全錄掌握한 宗門의 聖骨이나 기꺼이 범추를 박대하지 않으니 그 法衣는 강호를 덮고 남았다.
陋巷에 머물 때는 승단이 불조혜명의 구심처가 되도록 온몸을 던지고 蘭若에 들어서는 생사의 關頭에서 任運自在를 보여준 法主가 바로 禪師다.
거년에는 설악산 無門關에서 保任하더니 門 없는 門을 부수고 나와서는 드디어 천하에 한 물건을 내놓았다. 그 末後句는 一隻眼을 얻은 작가 宗師라 할지라도 혀를 빼물게 하는 것이니 어찌 경악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납승은 더 이상 보아야 할 눈도 말해야 할 입도 없다. 왜 그런지는 책을 펴는 순간 알게 될 것이다.

– 설악산 백담사 무문관 조실 무산오현 –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는 그것을
탐구하는 과정이 치열하고 표현하는 一言一句가
古劍처럼 빛났다.

–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종하 –



우리출판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9길 62 전화 (02)313-5047